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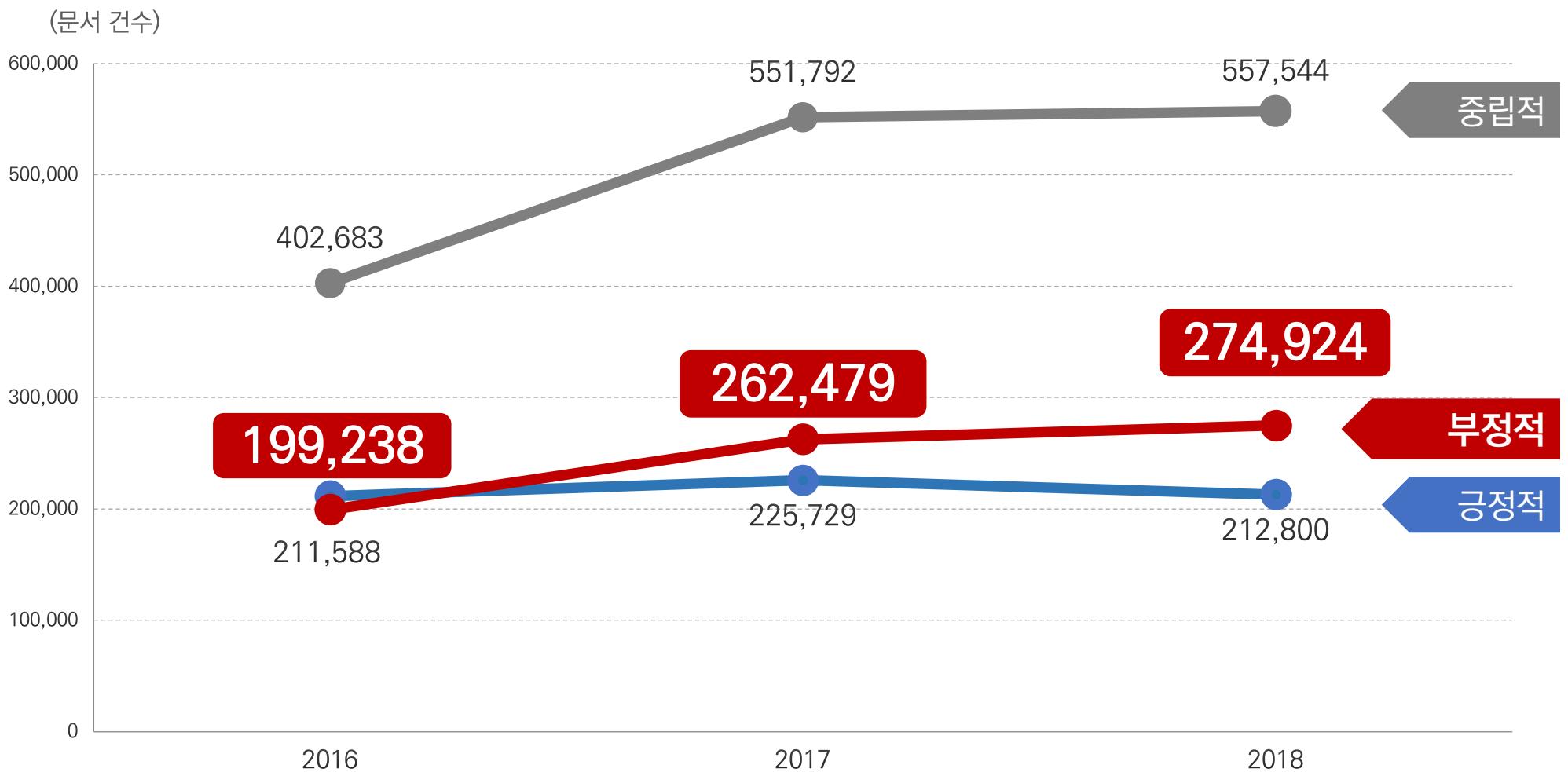
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은 직장에서부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주 : 2016~2018 국내 온라인 신문기사,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 '육아' 관련 소셜미디어 문서를 감성어 점수로 구분하여 긍정/부정 문서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펴봄.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 94.

소셜미디어 내 육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문서에서 ‘양육비’, ‘육아휴직’이 많이 나타남

※긍정문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경력’, ‘육아휴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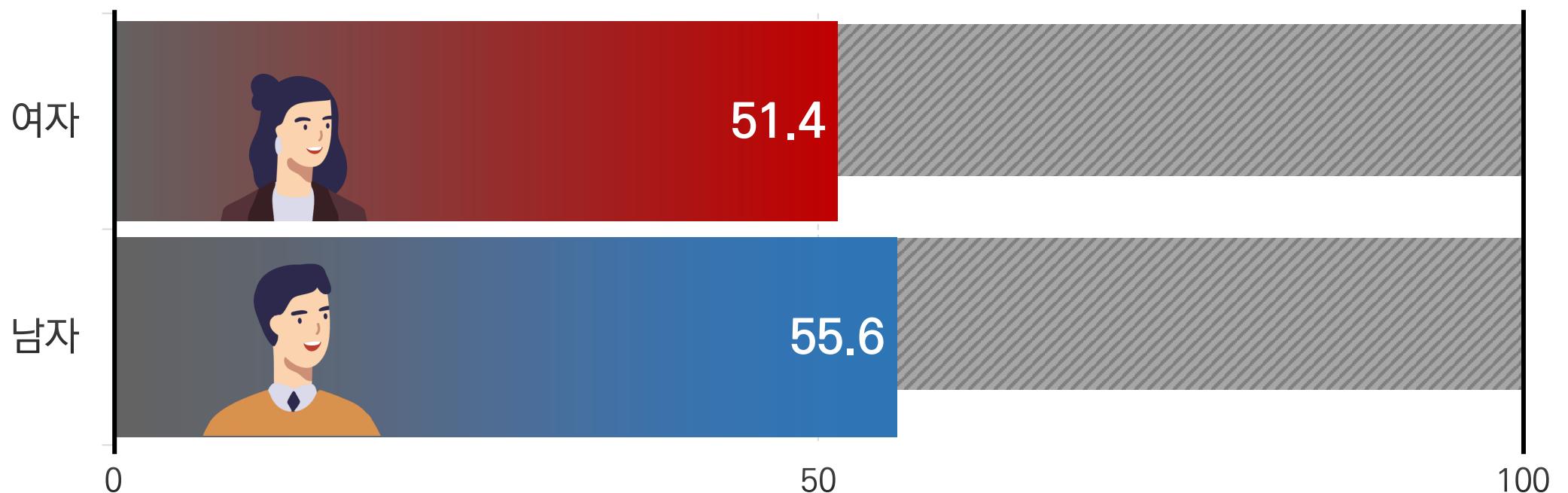


주 : 2016~2018 국내 온라인 신문기사,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 '육아' 관련 소셜미디어 문서를 육아를 긍정적/부정적으로 보는 문서로 구분한 뒤,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30개의 주제어를 빈도에 비례하는 크기로 구성함.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 103.

우리 사회의 긍정적 육아문화에 대한 20~40대의 만족도가 낮음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낮음.



주 :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조사대상: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p. 153-154.

무엇이 육아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는?

육아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



육아가족에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4.2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4.1

"아이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

4.0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4.0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

3.9

"아이"에 대한 배려부족

3.8

양성 불평등한 사회분위기

3.8

육아용품에 대한 과소비

3.8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3.7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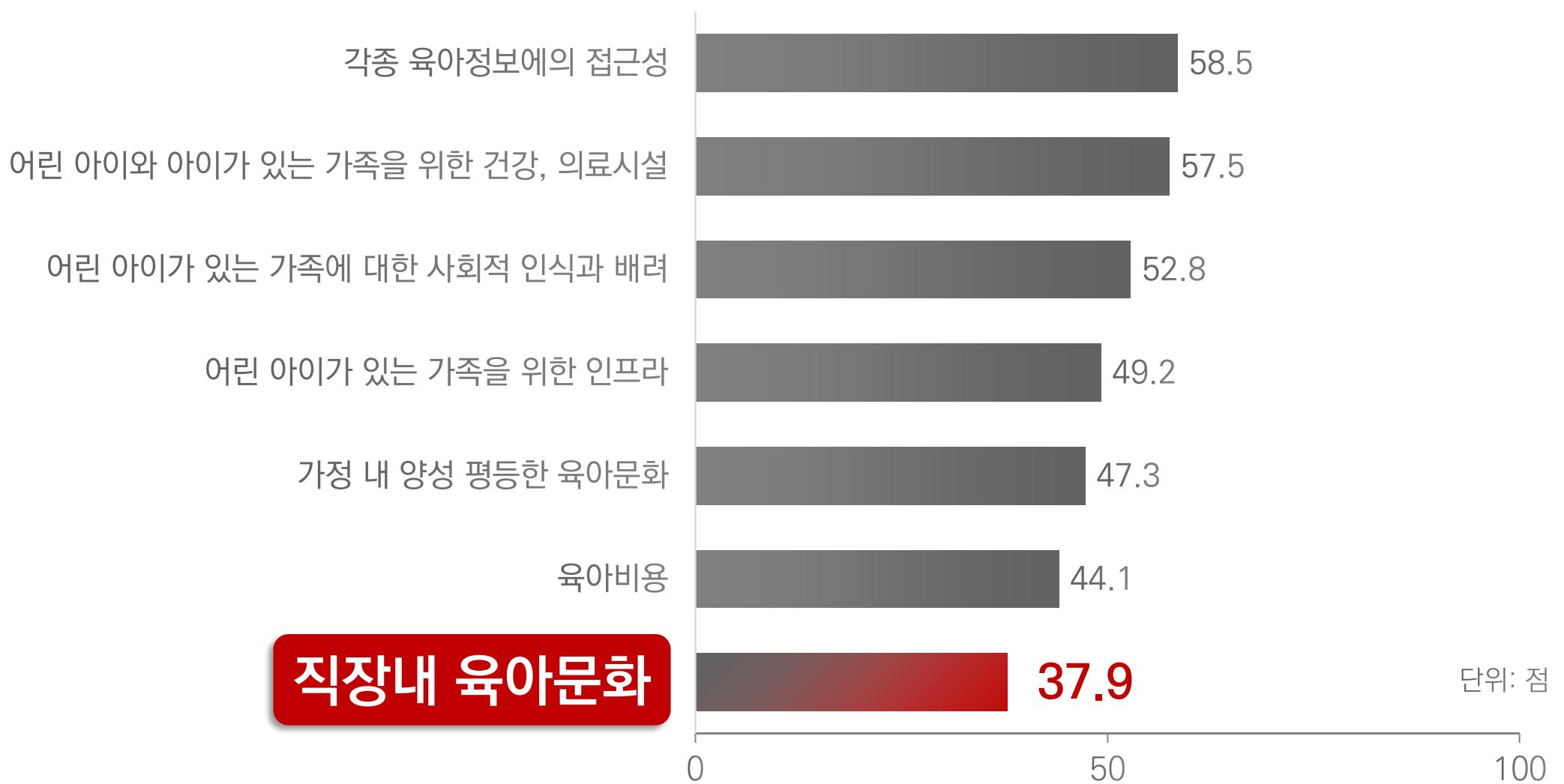
단위: 점

주 : 동의 정도(1~5점)를 조사한 결과임. 조사대상: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p. 223-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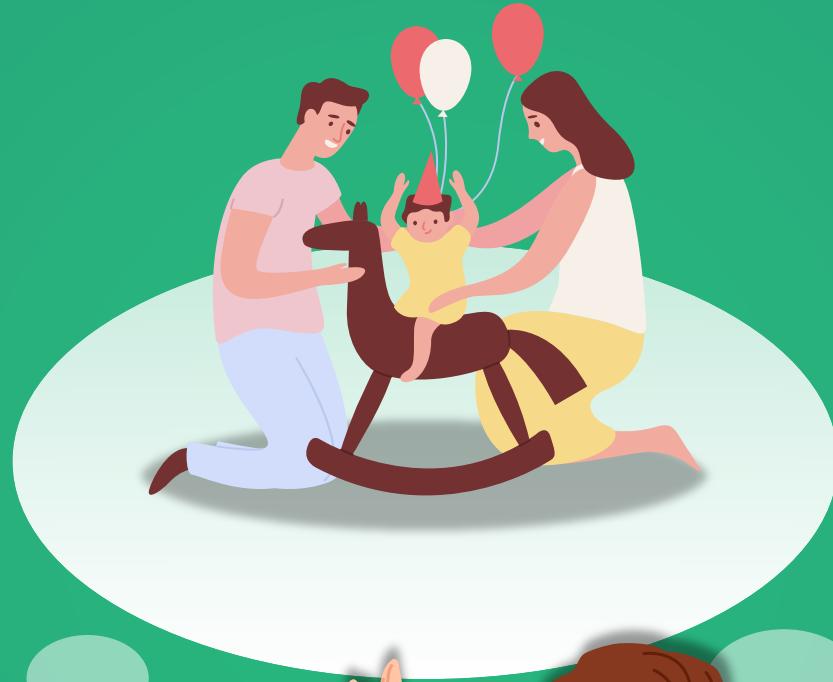
우리사회 육아문화 관련 항목 중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주 :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조사대상: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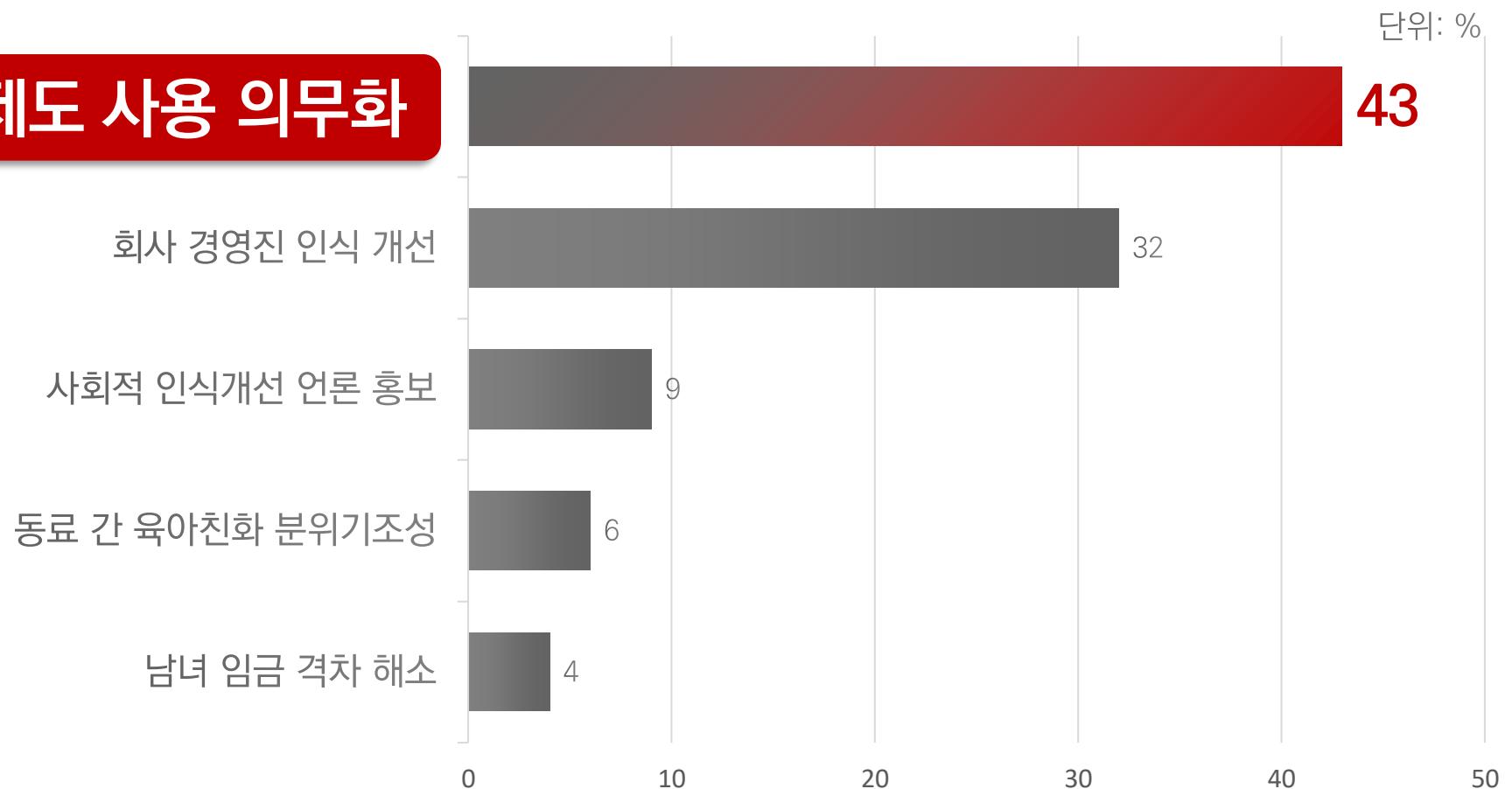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 155.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의무화가 가장 필요함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의무화



주 :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219.

만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4.7%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함 (어머니 11.9%, 아버지 1.2%)

남성

육아휴직사용률

1%

99%

육아휴직미사용



육아휴직사용



여성

육아휴직사용률

12%

88%

육아휴직미사용



육아휴직사용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30.8%)

✓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21.5%)

주 :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p. 234-235.